

까레이스키의 눈물과 희망을 노래하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전시 연 문 빅토르 작가

남평 문씨...카자흐스탄 고려인 대표 작가

문예교류진흥협회 주최...9일까지 우제길미술관

고려인 강제 이주 역사·아픔 담은 15점 선 보여



▶'1937 강제이주열차'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문 빅토르 작가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에 대한 슬픈 기억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기쁜 기억만 쌓길 바랍니다.”

문 빅토르(66) 작가의 작품은 슬픔과 희망이 공존한다. 무표정한 등장 인물들은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인 반면 차분하면서도 알록달록한 색채는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고려인 3세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문 작가가 오는 9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아픈 기억 꿈꾸는 희망’을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사)문예교류진흥협회가 마련한 자리다. 고려인마을이 있는 인권·평화도시 광주에서 전시를 열어 고려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다.

문 작가는 우리 지역과 밀접한 인연이 있다. 그의 시조는 남평 문씨다.

문 작가는 서툰 한국어로 “지난 2014년 서울 전시를 계기로 생전 처음 나주 남평읍을 방문한 후 ‘비로소 뿌리를 찾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때부터 광주에서 고려인 80주년 기념전을 열기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까레이스키’로 불리며 1937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8만명은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리정책과 숙청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시베리아 횡단 화물열차에 실려 6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해야 했다. 1만명 이상이 추위와 배고픔 끝에 도착했지만 기다리는 건 험란한 초원 뿐이었다.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던 문 작

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때 카자흐스탄으로 내몰린다. 어머니 박시나이다씨가 11살때의 일이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고려인 3~4세를 포함해 50만 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한국인이 그렇듯 고려인들은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높은 교육열로 사회지도층이나 문화예술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 박시나이다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아들의 예술적 열정을 후원한다.

어렸을 적부터 고려인들의 아픔을 듣고 자란 문 작가는 강제 이주의 역사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단,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픔을 그리지만 관람객들이 기쁨을 얻어갈 수 있도록 건전하고 밝은 이미지로 화면을 채웠다.



'군중 퍼레이드'

이번 전시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유화, 수채화 등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대표작 ‘1937 강제이주열차’는 문 작가의 예술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할아버지가 몸을 실었던 화물열차 속 풍경을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표현했다. 갓을 썼거나 상투를 쓴 남성들, 쪽진 머리를 한 여성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누워있고 얼굴 표정에서는 고통이 진하게 느껴진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새는 고려인의 상징이다. 문 작가는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철새를 고려인과 동일시한다. 특히 새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그리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불안정해진 고려인들의 신분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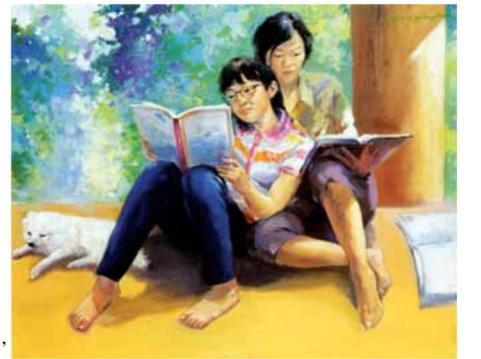
가로 240cm·세로 170cm 크기 ‘군중 퍼레이드’는 좀더 희망찬 분위기다. 수십명의 무표정한 얼굴을 배경삼아 새를 큼직하게 그려넣었다. 화면이 딱 차도록 활짝 핀 날개는 고려인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문 작가는 “강제 이주가 단행되지 벌써 80년이 흘렀다”며 “이제는 고려인들이 아픔 보다는 희망을 느끼고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갖는 세상을 꿈꾼다”고 기원했다.

문씨는 고골 알마티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국립고려극장 주임미술사로 재직했다. 1985년부터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을 비롯해 한국, 일본에서 개인전을 열며 이름을 알렸다. 문의 062-224-66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화려한 날의 나들이’...김미영 작가 초대전



▶'휴식'

30일까지 LH휴량갤러리

바쁜 일상 속 풍경 그림을 통해 위안을 건네고 있는 김미영 작가가 휴량갤러리(LH한국도지주택공사 1층)에서 30일까지 ‘화려한 날의 나들이’를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정물, 풍경,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정성이 담겨있다. 작품 ‘슬픈 초상’은 우리네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개를 숙인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거나 바스를 잡고 있는 노인들을 등장시켰다. 노인 주위에는 외제차 로고와 화려한 옷가게를 배치해 대비시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진희 초대전



▶'그림에도 불구하고'

30일까지 전남대 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김진희 작가가 ‘그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를 주제로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30일까지 초대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창조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여성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 권리와 희망을 찾고 있다.

작품 ‘그림에도 불구하고’ 연작은 여성의 머리카락을 풍성하고 화려하게 묘사하며 절대적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여름학기 미술강좌 유아·청소년·직장인 등 60개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YMCA와 함께 문화센터 여름학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유아·어린이강좌, 청소년·토요강좌, 성인예술 취미강좌, 직장인을 위한 화요 야간강좌, 희망미술프로젝트 등 총 60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설된 ‘키즈아트교실’은 아이들이 좋

아하는 포켓몬스터를 만들어 보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강좌이다.

‘여름향기’는 여름을 맞이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석고방향제, 자몽디퓨저 등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다.

먹과 색을 한지에 뿌리면서 온몸으로 색과 먹을 체험해 보는 ‘빛깔과 향기’, 숲에서 오감체험을 하는 ‘토요색갈놀이학교’ 등

도 개설했다. 전시연계프로그램은 현재 전시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재로 진행되는 미술 교육이다. 진원장 조선대 교수의 작품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색종이를 붙여 유리병 안에 소나기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한다.

또 ‘응답하라 1987’전과 연계해 손수건으로 민주화운동을 알아보고 어린이갤러리

전시와 관련, 식물로 나만의 공룡을 만드는 ‘굿 다이노’를 마련했다.

성인 예술 취미 강좌에서는 수채화·도에·누드드로킹·인물화 등 다양한 장르를 배울 수 있다.

홈페이지(artmuse.gwangju.go.kr) 참조. 전화 또는 방문접수. 문의 062-613-7180~1. /김용희기자 kimyh@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 &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